

‘달리는 흥기’ 화물차 또 졸음운전 참사

여수 마래터널 10중 추돌사고...운전자 “깜빡 졸았다”

향일암 가던 가족 차량 덮쳐 어머니 사망·딸 의식불명

연휴를 맞아 여수로 휴가를 떠난 일가족의 여행은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가에 이르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다. 시멘트를 가득 싣고 내달린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고창군 고창읍 조모(36)씨 가족의 여행길이 바닷가로 바뀐 시각은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여주시 만흥동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 마래터널 구간 안에서는 시멘트를 실은 18t 트레일러가 휴가철 정체를 멈춰선 차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운전자 조씨는 사고 직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트레일러를 뚫미러를 통해 보고 순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방향을 틀어보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깜’하는 굉음과 함께 조씨 가족이 탄 아반떼 승용차를 트레일러가 뒤에서 덮친 것이다.

트레일러는 조씨의 차량을 밀고 100m 이상 진행했고 앞서 있던 차량 10대도 연쇄 추돌했다. 사고로 조씨 어머니 김모(61)씨가 숨지고 큰 누나(41)는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 운전자 조씨와 조수석에 있던 작은 누나(39)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차량에 탄 운전자와 피서객 등 4명도 다쳤다.

조씨 가족에게 이날은 특별한 여름날이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막내 조씨와 작은딸이 고향 집에 내려와 모처럼 떠난 가족 여행이었던 것이다. 남매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고된 농사를 지으며 4남매를 길러낸 어머니에게 푸른 바다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 풍광을 보여주려고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남매는 ‘향일암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는 이웃의 여행담을 전하던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해 목적지를 여수로 정했던 것

으로 알려졌다.

첫째 아들(44)은 몸이 불편해 고향 집에 머물다가 비보를 전해 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뒤늦게 여수를 향해 출발했다.

하루도 안 돼 병원 영안실에서 다시 만난 큰아들과 동생들은 어머니 시신을 수습해 15일 낮 고향으로 돌아왔다.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둘째를 남겨두고 가는 세 남매의 걸음걸음마다 눈물이 고였다.

박군은 나쁜 운전자들을 잡고 졸음에 빠졌던 트레일러 운전기사 유모(53)씨의 과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운씨가 “터널에 들어와서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사고를 조사 중인 여수경찰은 우선 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트레일러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와 터널 내 CCTV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나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면 선행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면서 “운전자 졸음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과 화물 트럭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에 따른 추돌사고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날 17일 강원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선 차량 5대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못돼 또다시 여수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났기 때문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사고 순간 14일 오후 2시10분께 여수 마래터널 하행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조모(36)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트레일러를 목격했는지 급히 1차로로 방향을 틀었지만(맨 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최초 충격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트레일러는 1, 2차선을 오가며 150m를 내달려 10대를 추돌한 끝에 멈춰섰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여수 통학버스 사망사고’ 책임 범위는?

어린이집 교사 5명 과실 여부 적용 검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두 살배기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여수경찰이 형사책임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운전을 한 어린이집 원장 외에 차량 동승교사 1명과 인솔 교사 4명 등 5명의 교사 가운데 누구를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범으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통학차량 후진과정에서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M 어린이집 원장 송모(여·56)씨를 입건한 데 이어 안모(여·22)씨 등 교사 5명의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통학차량 도착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인솔교사 안씨는 10명의 어린이를 버스에서 내리게 했고 어린이집 안에서 4명의 교사가 나와 어린이들을 맞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9명의 어린이가 차량 앞쪽

으로 돌아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과 달리 박군은 홀로 버스 뒤쪽으로 돌아가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경찰은 홀로 남겨져 사고를 당한 박군을 어린이집 안으로 데려가지 않은 책임이 버스 인솔교사 안씨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사들에게 있는지를 검토한 뒤 이주 안으로 입건 여부를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후방 경고음 발생장치를 확인한 결과 정상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장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주변이 시끄러워 후방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통학 버스에 후방 영상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행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후방 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카메라 둘 다 강제하지 않고 하나만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조카 학대살해 이모 살인 혐의 송치키로

현장검증 담당하게 재연

학대 알고 신고 안한 원장

과태료 부과 통보 방침

진조카 학대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청은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최모(여·25)씨를 이르면 18일경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모 최씨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지난 10일 이후 현재까지 “황급에 조카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때리고 목 졸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데다, 폭행과 욕조 물고문, 목 조름 등 일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살인 행각으로 판단했다.

학대행위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조카 최모(3)군을 구조하려고 119에 신고한 행위, 잠시나마 심폐소생술로 여깁만한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혐의 가벼운 폭행치사나 아동학대치사 혐의 변경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숨진 최군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보고, 나주시에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지하기로 했다.

학대 의심 정황 발견시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최군의 학대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어린이집 원장 조사과정에서 “6월 말쯤 숨진 최군 몸에 멍자국을 발견해 학대가 의심된다고 친모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최씨는 폭행에도 모자와 마스크, 점퍼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등장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현장검증에서 숨진 조카를 대신해 경찰이 마련한 마네킹을 상대로 사위기와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손으로 목을 조르는 모습,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밀어넣는 과정을 담담하게 재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용증을 앓는 피의자가 원치않는 양육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무더운 날씨마저 계속되면 결국 살인사건으로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의자 최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지적수준이 부족하다고 여길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나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최군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보겠다는 이유로 유리컵과 사위기를 이용해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른 데 이어 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나주=송영철기자 ycsong@

‘어등산 문지마 살인’ 징역 18년 선고

광주지법, 치료감호 명령도

광주 도심 인근 등산로에서 처음 본 등산객을 흥기로 살해한 4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등산로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한 것

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5시17분께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팔각정 인근 등산로에서 흥기로 A(65)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통화 중이던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 끝에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잔류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나타냈으며,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물놀이하던父子, 썰물에 물빠지며 갯바위 고립됐다 구조



○...구명조끼 없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부자가 썰물로 인해 인근 갯바위까지 떠내려가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해경에 구조.


갯바위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 관계자는 “박씨 부자가 휴가철을 맞아 서울에서 가족들과 피서를 왔다가 구명조끼 없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던 중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갯바위에 고립됐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무리한 물놀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

○...1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영광군 연산면 백바위 해변으로 피서 온 박모(44)씨와 박씨의 아들(17)이 해변에서 500m 떨어진

해변에서 500m 떨어진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G.O. 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정]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 건물 1,495㎡ NPL추천물건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 [상가] 광주 서구 차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시 상가 483㎡ 카페, 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가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 [공정]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0억6천7백(36%)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원룸]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가 2억6천5백 ▶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3층상가 대지 691㎡ 건물 1008㎡ 감정가 8억8천3백 ▶ 최저가 3억9천5백 (45%) 투자추천
- ★ [공정]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석곡농공단지 대지 4,753㎡ 건물 2,619㎡ 감정가 7억8천3백 ▶ 최저가 2억8천 (36%)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주주거처 대지 475㎡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운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 2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양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하산산 조양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슈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 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